

낮에만 뜨는 '닥터헬기'... 밤잠 설치는 심환자

심야 비행 사실상 금지·운항 반경도 짧아

휴가철 섬 찾은 관광객 늘어 대책마련 필요

전남 섬 지역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운영중인 헬리콥터 대부분이 낮에만 운항토록 제한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여름 휴가 기간 중 전남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여름철 수해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헬기 활용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 헬기'의 경우 낮에만 반경 100km 이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 의학 전문가가 탑승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구비된 만큼 섬 지역 응급 환자 이송 및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하절기에는 새벽 5시~오후 7시까지 비행시간이 정해져 사실상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 이송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전남 296개 섬 중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지역의 환자 이송만 가능해 100km 이상 떨어진 신안 흑산, 완도 급일·급당·약산·고급의 경우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응급 이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골든타임'(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처치시간) 확보를 위한 운항 취지가 무색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나마 6인승에 불과한데다, 최대 이륙 무게(2910kg) 등을 고려하면 의료 장비, 조종사, 의료진을 제외하면 14세 이상 환자의 경우 가족도 동승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목포해경이 운영하는 응급의료헬기(1대)는 24시간 운항할 수 있어 야

간 응급환자 수송에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출동 시 탑승해야 하는 응급의료진(응급구조사)은 1명 뿐이라 교대 근무를 고려하면 24시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섬 지역 병원의 의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야간 환자 수송에 동승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방법도 마땅치 않아 환자만 태워 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신안 한 병원 관계자는 "섬 지역 병원은 대부분 의료진이 부족하고 돌아올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만을 태우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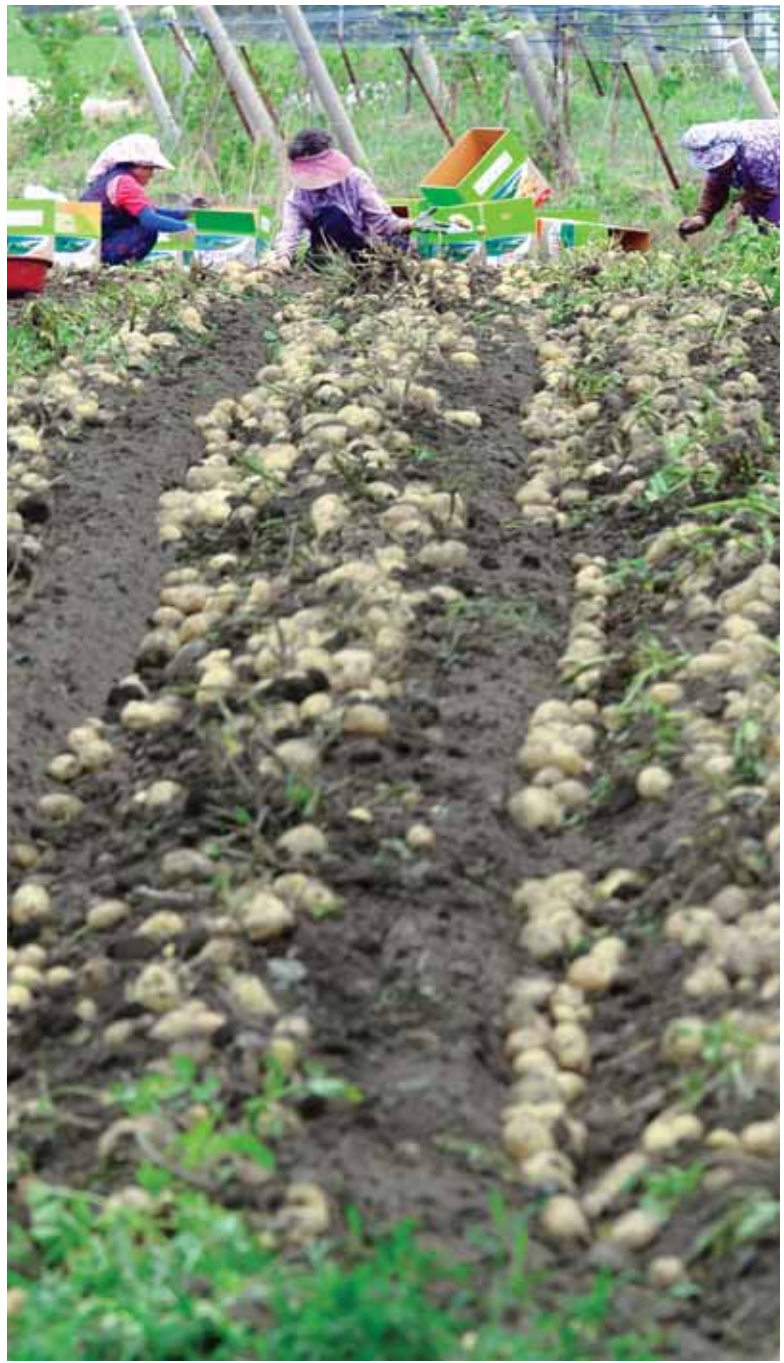
전남도소방본부가 운영하는 소방헬기(2대)도 야간에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이 10곳에 불과해 섬 지역 운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착륙장 대신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명 시설 설비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공간마저 없는 작은 섬이 많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아울러 헬기가 각각 1999년과 2004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점, 운항 전 10분 가량의 예열 시간이 걸리는 점도 응급 환자 이송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남도소방본부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섬 지역 야간 헬기 착륙장 예산을 확보, 올해 13곳의 착륙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보성 회천감자 수확 현장

16일 호남 최대 감자 주산지인 보성군 회천면의 한 감자밭에서 농민들이 간식용으로 인기가 높은 해풍을 맞은 '수미' 햇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적절한 차간거리 유지 'NO 브레이크' 운전을

경제속도 준수하고 차량 가볍해야 연료비 절감

환경·경제 두토끼 잡는 '친환경 운전' 비결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기름값도 절약하는 친환경 운전법은 뭘까? 지난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개최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에서 30개 팀이 경쟁을 통해 생활 속 친환경 운전법을 소개했다. 1위를 차지한 박문현(66)·박태훈(36)씨 부자 팀은 우승 비결로 '노(NO) 브레이크'를 꼽았다. 교통 흐름을 보고 미리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 브레이크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운전법의 핵심은 적절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급출발·급가속·급감속 10번을 하면 연료비가 180원이 더 든다고 밝혔다.

내비게이션으로 교통 체증구간을 확인하고 교통량이 적은 구간으로 주행하는 '정보운전'도 이들 부자가 매일 실천하는 친환경 운전법이다.

영산강환경청은 경제속도(60~80km)를 준수하면 연료비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에 따라 뜨는 연료는 저속인 시속 20km에서부터 줄어들다가 시속 60~80km에서 가장 적게 들리고 이후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연료는 늘어난다. 실제 각 속도별 정속운행으로 실험한 결과 시속 60~80km 구간에서 20.4~19.6km/l로 가장 높은 주행연비와 가장 낮은 배출가스가 발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김중두(40)·김나은(35)씨 부부 팀은 출발 전 차량을 가볍게 하는 비결을 소개했다. 중량이 늘어날수록 연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마련. 무게가 10kg 늘면 50km 주행 시 연료가 0.08ℓ 더 필요하다. 꾸준히 운전하게 되면 절대 만만히 볼 수치가 아니라는 게 김씨 부부의 설명이다.

친환경 운전 강사로 나선 유형석 현대자동차 고객지원팀 차장은 "여름철 차량 에어컨을 사용할 때 처음 5분간은 최대 냉방으로 돌리고, 그 후 풍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며 "휴가철 장거리 운전 전에 정기 점검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흥 방촌리 석장승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전남도 민속문화재 제33호인 '장흥 방촌리 석장승'이 지난 1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제275호로 승격됐다.

장흥 방촌리 석장승은 관음에서 방촌으로 넘어가는 23번 국도 양쪽에서 있는 두 기의 장승이다.(사진)

고려말 건립한 성문(城門) 장승이라는 설과 조선시대 후기(17~18세기)에 창궐한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세웠다는 설이 있다.

현재도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동제(洞祭)인 별신제의 신격(神格)으로서 마을 수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별신제는 제관이 축문을 읽은 뒤 굿을 하는 마을제로 전남에서 흔한 용어는 아니지만 장흥에서 매년 모시는 전통적 마을 제사에서 사용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bungy@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해질녘 19시 49분** **달돋이 13시 01분** **달지기 00시 21분**

낮부터 흐림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다.

구분	지역	기온
광주	흐림	20/30℃
목포	흐림	20/26℃
여수	흐림	21/27℃
나주	흐림	18/29℃
완도	흐림	20/28℃
구례	흐림	19/32℃
강진	흐림	19/28℃
해남	흐림	19/28℃
장흥	흐림	20/29℃
순천	흐림	18/29℃
영광	흐림	18/27℃
진도	흐림	19/26℃
전주	흐림	19/28℃
군산	흐림	19/26℃
남원	흐림	19/29℃
홍산도	흐림	19/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노출증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위험 매우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목포 00:25 07:30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여수 02:26 08:4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15:17 21:2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씨						
최저/최고	22/24	21/29	20/30	20/30	21/29	20/28

내일부터 장마 광주·전남 최고 100mm 비

18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19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방은 1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19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이 기간 30~70mm 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일 오후부터 19일 사이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동·반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곳에 따라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19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20~29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그 후부터 일시적으로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또다시 더워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16일은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해 장흥 32.7도, 순천 31.4도, 보성 31.0도, 강진 29.8도 등 전남 일부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높은 낮 최고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진드기 감염 또 사망

아생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아생진드기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오후 숨졌다.

이 남성은 지난달 말에 텃밭에서 일하던 중 벌레 등에 옆구리를 물린 후 혈소판과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발열 등 SFTS 유사 증상을 보여 강원 지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써 15일 자정 기준으로 국내 SFTS 감염 확진 환자 9명 중에서 사망자가 1명이 추가됨에 따라 총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자연산 참솨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솨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솨 음식 토종 참솨닭 / 솨 청동오리 / 솨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존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솨닭 (오보 식사 소포함) **40,000원**

존담백숙 **38,000원**

솨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솨닭 062)515-5757(솨칠솨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만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음주포함)	취약어린이(음주포함)	미취약어린이(음주포함)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양지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볼골레 Bulgolle ₩10,800

베리언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